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

전남도민일보

㈜하랑A+
전국최고 분양대행 선두주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53, 4층 T.062)673-2900

제 3844 호 대표전화 (062) 227-0000 jndomin.kr (음력 10월 08일)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광주 도심에 자율주행차 달린다…11월30일 첫 운행

광주 5개 자치구서 국내 최초 도시 단위 본격 실증 돌입

연말까지 SDV 실증차량 120대 투입…17일 통합사무실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오는 11월30일부터 광주 도심에 자율주행 실증차량이 달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 참여기업과 함께 오는 11월30일 국내 최초 도시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인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첫 실증차량이 차질 없이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자율주행 차가 실제 복잡한 도로교통 환경에서 다양한 주행 상황을 경험하며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 5월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출범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업과 함께 차량 제작·개조, 운행 지원, 24시간 사고대응체계 구축 등 실증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200대를 제작·인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67대를 인도했다. 현대차·A2Z·라이드플럭스 등 자율주행 개발기업들은 인도받은 차량에 센서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는 개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이드플럭스는 지난주 첫 차량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했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연말까지 약 120대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 투입될 전망이다.

초기 실증은 차량 통행이 적은 외곽지역의 넓은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후 기술 검증을 거쳐 이면도로 등으로 운행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증차량 투입 규모도 참여기업별 운행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운행 구간과 차량 투입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시민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기업의 원활한 실증을 돕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실증차량의 위치와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통합운영사무실'이 오는 17일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참여 기업들이 사용할 사무공간도 마련돼 지난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205면 규모의 전용 차고지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이달 중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 전 차량 점검부터 비상상황 대응까지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안전·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본격적인 차량 투입에 앞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사고대응체계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현대차, 쏘카·에이펙스모빌리티와 국내 자율주행 생태계 키운다

현대자동차가 쏘카 및 에이펙스모빌리티와 손잡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자율주행 서비스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현대차는 최근 서울 성동구 쏘카 본사에서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공급 및 데이터 수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금) 밝혔다.

체결식에는 현대차·기아 SDV플랫폼담당 유지한 부사장, 쏘카 및 에이펙스모빌리티 박재욱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각 사가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과 모빌리티 운영 역량을 결합해 국내 자율주행 실도로 데이터 확보부터 자율주행 라이드헤일링 전용 차량 플랫폼 개발, 서비스 실증까지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자율주행 차량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검증 ▲국내 도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제공 ▲자율주행 라이드헤일링 전용 차량 플랫폼 개발 및 소프트웨어 실증 ▲라이드헤일링 서비스 운영 노하우 및 자산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현대차는 이번 협력을 통해 실제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자율주행 라이드헤일링 전용 차량 플랫폼 개발에 반영하고, 나아가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각 사는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과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함께 실증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차량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연동하는 장치인 데브킷(DevKit, Development Kit)을 쏘카와 에이펙스모빌리티에 공급하고, 쏘카와 에이펙스모빌리티는 국내에서 운영 예정인 플릿 차량에 이를 적용해 서비스 최적화에 활용한다.

또,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국내 도로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협력한다. 현대차가 데이터 수집 기준을 제시하고, 쏘카와 에이펙스모빌리티가 현재 보유 중인 플릿 차량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에 특화된 실주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